

영상번역 연구의 동향과 전망*

조 성 은
(한국외국어대)

1. 서론

번역은 이제 더 이상 문자 위주의 영역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텍스트는 하이퍼텍스트로 디지털화하고 있고 텍스트의 의미 자체가 무한대로 확장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영상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에 번역의 영역도 과거의 문자 위주에서 움직이는 역동적인 스크린 위주로 바뀌고 있다.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된 유비쿼터스 시대, 정보의 유입이 다양한 통로로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멀티미디어 시대에 영상에 대한 번역의 수요 또한 무한대로 급증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종이 위주의 사회에서 미디어 위주의 사회로 변화면서 미디어 번역, 즉 영상번역은 본격적으로 번역학 내의 가장 역동적인 분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Oreiro 2004).

* 이 연구는 2013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영상 정보의 파급력은 엄청나다. 예를 들어, BBC 뉴스에 의하면 흥행작 아바타(Avatar)는 출시 4일만에 4백만개의 DVD와 2백7십만개의 Blue-ray 디스크 판매고를 올렸고¹⁾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비디오인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2014년 5월에 조회수 19억 8천 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문자의 시대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속도이고 파급력이다. 자발비스코아(Zabalbeascoa 2010: 32)는 급변하는 시대에 “영상 리터러시(audiovisual literacy)”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영상번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상물의 이해와 보급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영상의 영역은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넘어 스마트폰 스크린의 SNS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고, 인간의 의사소통은 이런 다양한 영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영상 리터러시(audiovisual literacy)와 영상번역은 커뮤니케이션의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다. 번역학에 70년대의 “언어적 전환기”, 80년대의 “문화적 전환기”, 그 이후의 “실증적 전환기”(Snell-Hornby 2006)가 있었다면 이제는 번역학은 “영상 전환기(audiovisual turn)”의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Remael 2010: 15).

제임스 홈즈가 1972년에 “Translation Studies”라는 학문의 이름을 명명한 이후, 번역학이 정통 학문 분야로 학계에서 자리매김한지 불과 삼십여 년밖에 안 되었지만 학문으로서의 번역학은 다른 어떤 연구 분야보다 더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번역학은 이미 독자적인 학문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지만 번역학이라는 학문 영역 중 영상번역 연구가 “영상번역학(Audiovisual Translation Studies)”으로 독자적인 연구 분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분야가 “신데렐라” 취급을 받던 시대는 이제 사라졌다(Diaz-Cintas 2008: 1). 2013년에 열린 유럽번역학회(EST, European Society for Translation Studies) 총회의 24개 패널 중 4개의 세션이 영상번역에 할애될 정도로 영상번역은 번역학이라는 학문의 역동적인 견인차 역할을 하는 영역으로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양적 발전을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영상번역 연구가 아직까지 인문학, 사회학 또는 심지어 번역학 내에서 주변주(periphery) 학문 취급

1) “Avatar breaks US DVD sales record”

<http://news.bbc.co.uk/2/hi/entertainment/8643539.stm>

2) 7th EST Congress - Gernersheim 2013 <http://www.fb06.uni-mainz.de/est/43.php>

을 받는 것은 아직 문학이나 어학 관련 번역학 연구에 비해 그 학문적, 이론적 성과가 정립되지 않은 탓도 있다. 그러나 국내외의 번역학 분야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살펴보면 영상번역 관련 연구들이 양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연구주제 또한 점차 다양화되고 세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듯 영상번역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고 영상번역 관련 연구논문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영상번역 연구 성과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연구된 학술지 게재논문들을 중심으로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검토하고 영상번역 연구의 당면 과제를 모색함으로써 향후의 영상번역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영상번역 연구의 역사

영상번역 연구의 초기 역사를 살펴보면 80년대까지는 별다른 연구 성과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화 번역에서 더빙의 동시성(synchrony)를 학술적으로 분석한 포도르(Fodor 1969)의 저술 이후 70-80년대에는 주로 자막관련 연구(Dollerup 1974; Mayoral et al. 1988)를 중심으로 학술 논문이 간간히 발표되었다. 번역학의 문화적 전환기가 도래한 1989년에 델라바스티타(Delabastita 1989)는 『바벨(Babel)』지에 실린 논문에서 기술론적 번역학의 시각에서 영상텍스트에 대한 문화적 분석을 시도했다. 같은 해에 불어로 쓰인 랑베르(Lambert 1989)의 논문이 『타겟(Target)』에 발간되었고, 유럽미디어연구소가 발행한 뤼켄(Luyken et al 1991)의 단행본을 필두로 영상번역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본격적으로 오르게 되었다 (Remael 2010; Bogucki 2013; Gambier: 2012). 감비에르(Gambier 2008: 12)는 1995년이 영상번역 연구의 분수령이 되는 해였다고 언급하며 그 이유로 1)그 해에 영화 탄생 백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가 열렸고, 2)유럽 내 소수언어를 쓰는 공동체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각시키는데 영상미디어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깨닫기 시작하여 영상번역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기 시작했고 또한 3)바로 그 즈음에 CD-ROM, DVD 등의 대용량 저장장치와 고속 인터넷이 엄청난 속도로 보급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한다(Gambier 2008).

이바슨과 캐롤(Ivarsson and Carroll)의 1998년 저서에 의하면 1998년까지 영상번역 관련 학술논문 또는 서적은 58개 정도였고 더빙 관련 저술은 3편 밖에 없었지만(Ivarsson and Carroll 1998) 영상번역 연구는 그 이후 급속도로 확대되기 시작한다. 스페인의 알리칸테 대학(Universidad de Alicante)의 프랑코 아이헬라와 클라베로(Franco Aixelà and Clavero)는 BITRA³⁾ 라는 번역학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1931년부터 2000년도까지 영상번역에 대한 연구 목록을 분석하였고, 자신들의 연구의 목적이 "영상번역의 기본 연구주체의 발전을 보여주고 이 학문분야의 통합적인 발전을 위한 제안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Franco Aixelà and Clavero 2005). 이 연구에서는 1991년에서 2000년도까지 번역학 분야의 저술목록이 두 배 정도 증가한 반면 영상번역 영역의 연구논문 숫자는 여섯 배 증가하였다고 밝히며, 20세기에 간헐적으로 연구되어졌던 영상번역이 바야흐로 독자적인 학문 분야로 드디어 부각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Franco Aixelà and Clavero 2005).

2000년대 이후에는 존 벤자민스(John Benjamins)와 세인트제롬(St Jerome Publishing) 등 번역학 관련 굴지의 출판사에서 영상번역 관련 단행본이 다수 발간되기 시작했고(Gambier and Gottlieb 2001; Orero 2004, Díaz Cintas and Remael 2007; Chiaro, D. et al 2008; Díaz Cintas 2008; Díaz Cintas and Anderman 2008; Díaz Cintas 2009), *The Translator*⁴⁾와 *META*⁵⁾ 등 번역학 전문 학술지에서 영상번역을 특집으로 다루면서 영상번역 연구가 더욱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디아즈-신타스(Díaz-Cintas 2006: 1)는 “학술적 인정을 향한 기나긴 여정”이라는 부제를 달은 자막번역에 관한 논문에서 “수치를 보면, 영상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번역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번역활동”이라고 언급하며 이 분야의 역사를 점검하고 사회문화적 함의를 분석하는 연구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국외 영상번역 연구의 역사는 짧지만 영상텍스트의 파급력에 힘입어 독자적인 연구 분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 번역학회가 창립 15주년을 기념하는 지금, 국

3) BITRA - Bibliography of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http://dti.ua.es/en/bitra/introduction.html>

4) *The Translator*, Volume 9 Issue 2, 2003. Special Issue. Screen Translation

5) *Meta*, Volume 49, número 1, 2004. Special Issue on Audiovisual Translation

의 연구 동향과 궤를 같이 하는 국내 영상번역 연구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되는 바이다.

3. 국내 영상번역 연구동향 분석

본 장의 내용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외 영상번역 연구에 관한 동향 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총 82편의 영상번역 관련 논문을 대상으로 정량분석을 통해 국내 영상번역 연구 동향을 다각도로 파악하였으며, 뒤이어 각 세부 주제별로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이제까지의 영상번역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부족한 연구 주제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영상번역 연구의 확대, 이론적 논의의 활성화 그리고 연구방법론의 다각화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디지털 영상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영상번역에 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Gambier 2008: 25). 이러한 변화와 발을 맞추어 영상번역 연구 영역에서도 양적 증가와 함께 연구 주제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영상번역의 발전을 포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연구 성과를 찾기란 쉽지 않다. 어떠한 연구 주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없이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학문적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영상번역 연구방법론의 국내 동향을 분석하고, 영상번역 연구 지형을 파악하여 향후 영상번역 분야의 연구방향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2000년 이후에 출판된 번역학 관련 분야의 학술지 논문 중 영상번역과 관련된 논문들에 대한 정량분석과 내용분석을 통하여 지금까지의 국내 영상번역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학문적 과제의 방향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3.1 번역학 관련 연구동향 분석

국내 번역학의 연구동향에 대한 분석은 김지원(2000, 2004)과 유명우(2000)

의 저술을 시작으로 많은 성과가 있어왔다. 김정우(2005)의 연구는 향후 연구 과제를 전망하는 것을 목표로하였고 최희섭 (2007)는 『번역학연구』의 현황과 국내 문헌 인용에 고찰을 하였고, 한국의 번역학 역사를 기술한 김정우 (2008), 이영훈 (2013), 김지원(2013)의 성과도 있었다. 국내 번역학 연구 경향에 관한 고찰은 이항(2011, 2013)의 연구에 이어졌고, 신지선(2013)은 번역교육 관련 연구 동향 및 연구과제를 분석했으며, 정호정(2013)은 번역학 관련 국내외 대표 학술지를 점검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14년간 한국 번역학이 다루어온 연구 주제 및 방법론에 대한 김혜림(2013)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이들 연구는 국내 번역학의 전체 학문적 연구동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그간의 연구 성과 및 문제점을 제시하고 향후 연구 주제 및 연구방향을 제안하였다. 본고의 주제인 영상번역에 대해 김순영·정희정(2010)은 인터넷 기반 비전문가 자막번역(Fansub)에 대한 선행연구로 국내 연구현황에 대한 분석을 했으나 『통번역학연구』와 『통역과 번역』 두 개의 학술지에 대한 분석으로 제한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번역학 분야의 연구 성과가 상당히 축적됨에 따라 번역학의 연구동향에 대한 연구논문들은 여러 편 발표되었으나 아직까지 영상번역만을 위한 국내 연구동향에 관한 연구는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요 학회지 논문을 중심으로 국내 영상번역 분야의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연구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따라서 영상번역이라는 전문 분야의 연구 현황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이라는 점에서 본고의 의의를 두고 있다.

3.2 영상번역 관련 연구동향 분석

본 연구에서 영상번역 관련 논문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술 웹 DB dbpia과 KISS의 번역학 키워드 audiovisual translation, screen translation, subtitling, dubbing을 살펴보고 국내 번역학 관련 학술지인 『번역학연구』, 『통번역학연구』, 『통역과 번역』과 『통번역교육연구』의 목차를 조사하였다. 기간은 『통역과 번역』이 창간된 1999년부터 2013년 12월까지로 정하였으며 논문의 제목 또는 키워드에 영상번역, 더빙, 자막, 등이 포함된 것을 중심으로 본문 내용을 확인하여 검색되는 영상번역 관련 논문을 추려내었다. 또한 학술지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학위논문과 학술대회 논문집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국내 여러 학술지에 발표된 영상번역 관련 연구 논문은 총 82편이었다(<부록 1> 참조). 조사된 논문들은 먼저 정량분석을 통해 연도별 발표논문 현황, 연구 주제별, 연도별 연구주제 현황, 분석대상 장르별, 언어별, 영상번역 방식별 논문 현황 등을 조사하여 국내 영상번역의 연구 동향을 다각도로 파악하였으며, 뒤 이어 각 세부 주제별로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지금까지 이어진 연구 주제들을 인식하고 향후 영상번역에서 연구되어야 할 연구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3.2.1 정량분석

학술지별로 발표논문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표1>과 같이 2003년에 처음으로 발표된 이후에 현재까지 영상번역 관련 논문이 매년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학회지별로는 『번역학연구』에 24편으로 가장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고 영상번역의 언어적 접근 연구에 집중되었다가 최근 몇 년 동안 문화 관련 연구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영상번역에 대한 연구는 국외의 연구 동향과 발맞추어 2007년도에 급증하여 2008년도에 가장 많은 수의 논문이 발표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 1> 연도별 발표논문 현황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합계
번역학연구		1		2	2	7	3	3	1	3	2	24
통번역학연구	1				1	2		1			4	9
통역과 번역	1	1	1		3	2	1	1		2		12
통번역교육연구		1	1	1	3	3	3	2	3		2	19
기타 학술지		1		2	1	1	4	3		3	3	18
합계	2	4	2	5	10	15	11	10	4	8	11	82

각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 주제의 종류는 <표2>과 같다.⁶⁾ 영상번역 연구에 주로 분석된 주제와 이론전개는 초기부터 현재까지 비교적 꾸준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영상번역의 주제를 크게 6개 영역 1)언어학적 분석(화용론적 접근), 2)영상텍스트 특성 분석, 3)번역학 이론적 접근, 4)문화적 접근 및 번역 전략 분석, 5)교육학적 접근, 및 6)오역사례 분석 등으로 구

6) 본 연구에서는 번역학의 관점이 아닌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의 팬자막 관련 사회 과학적 연구, 우리말 및 영어 외 다른 언어로 된 논문, 그리고 통번역 수단으로의 미디어를 분석한 논문은 배제하였다.

분하였고, 연구주제를 <표3>과 같이 시기별로 나누어 보았다.

<표 2> 연구 주제별 논문 현황

언어학적 분석 (화용론적 접근)	공손성	5	19
	금기 비속어 어휘 관련	1	
	문체 연구	1	
	스피치 레벨 시프트	1	
	다의성 연구	1	
	언어기호 유표적 표현	1	
	언어유희 비유 문체	1	
	언표내적 화행 연구	1	
	우리말 사용 실태	1	
	은유의 문제	1	
	자막의 유표적 주제 구조	1	
	직시어 분석	1	
	화용론적 전체	1	
	SFL의 주제 구조	1	
영상텍스트 특성 분석	자막의 축약/생략 현상	13	17
	영상기호 분석	2	
	더빙과정	1	
	연구현황(중국영화번역)	1	
번역학 이론적 접근	스코퍼스 이론	2	10
	가독성	1	
	수용성	1	
	자국화 현상	1	
	텍스트성	1	
	자막의 다시쓰기	1	
	구술성	1	
	적합성	1	
	폴리시스템 이론	1	
문화적 접근 및 번역 전략 분석	번역 전략	11	25
	팬번역(Fansub)	7	
	번역과 문화/젠더	4	
	유머 번역	3	
교육학적 접근	자막을 통한 영어교육	3	8
	영상번역 교육	3	
	영상번역을 통한 번역학 교육	2	
오역사례 분석	오역 분석	3	3
합계			82

2007년 이후 연구 논문 수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연구방법의 종류도 점차 다양해지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2010년 이후로도 영상번역에 대한 논문이 약간 주춤한 상태이다. 여전히 자막의 축약, 생략 현상과 번역 전략에 대한 논문이 주를 이루고 있고, 새로운 연구 주제에서 시도가 없는 가운데 장차 연구방법의 다양화를 통한 연구 영역의 확대가 필요하다 하겠다. 주제영역을 시기별로 보면, 2003년도에 영상번역과 외국어교육을 접목하는 논문을 시작으로, 언어학 접근과 문화적 접근방식으로 주로 연구되었으나 2007년도 이후에는 영상텍스트의 특성에 대한 인식 증가와 더불어 연구 주제가 확대되고 논문의 수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연도별 연구주제 현황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합계
언어학적 분석 (화용론적접근)			1		2	5	4	2	1	3	3	21
영상텍스트 특성 분석		2		1	6	3	2			1	2	17
번역학 이론적 접근				2	1	1	2		2		1	9
문화적 접근 및 번역 전략 분석		1	1	2		4	3	6	1	2	4	24
교육학적 접근	2				1	1		2		2		8
오역사례 분석		1				1					1	3
합계	2	4	2	5	10	15	11	10	4	8	11	82

또한 <표4>에서는 영상번역 분석대상이 되는 텍스트를 장르별로 구분해보았는데 분석대상 텍스트의 장르가 영화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표5>는 언어별 현황으로 영어에서 우리말로 번역되는 텍스트에 대한 분석이 다수임이 나타났

다. <표 6>에서는 번역 방식별 논문 현황으로 자막에 대한 연구가 다수라는 점이 나타났다.

〈표4〉 분석대상 장르별 논문 현황

영화	50
TV 드라마	15
애니메이션 영화	3
영화 제목	3
영화 + TV 드라마	2
영화 + 더큐멘타리	2
이론	2
영화 + TV 만화	1
TV 만화	1
더큐멘타리	1
소설/영화 각색과 번역	1
인터넷 사이트 동영상	1
합계	82

〈표5〉 언어별 논문 현황

영어/한국어	44
한국어/영어	13
영어/한국어+한국어/영어	4
한국어/일본어	4
일본어/한국어	3
한국어/중국어	3
일본어/한국어	3
불어/한국어	2
러시아어/한국어	2
중국어/한국어	1
영어/이태리어	1
영어/중국어	1
영어/불어	1
합계	82

〈표 6〉 영상번역 방식별 논문 현황

자막	69
영화 제목	5
더빙	2
자막 + 더빙	2
이론	3
연구동향	1
합계	82

3.2.2 주제별 내용 분석

본 절에서는 82편의 논문을 앞에 언급한 6개의 주제로 나누어 각 주제별로 내용을 정리하고 연구 동향을 분석한다. <표 2>에서 나타난 언어학적 분석(화용론적 접근)의 세부 주제를 살펴보면 박윤철(2008), 장민호(2009) 등 공손성(Politeness)에 대한 논문이 5편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상 속 등장인물들 간의 대화 분석이 위주가 되는 영상번역 텍스트의 특성으로 인하여 영상번역 영역은 불가피하게 언어학적 분석(화용론적 접근)이 용이하기 되며, 비록 자막에서의 언어적 다양성의 문제는 “거의 해결 불가능” 하지만(Diaz-Cintas 2004a: 53) 국내의 연구 논문들은 화용론 등 언어학적 접근 방식으로 다양한 연구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 나타난다.

영상텍스트 특성 분석을 다루는 연구 논문들은 주로 자막번역의 공간적, 시간적 제약(constraints)에서 일어나는 축약/생략 현상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다(강지혜 2006; 박윤철 2007). 10여 년 전 영상번역 연구의 주요 쟁점은 자막번역에서의 손실, 즉, 영상번역의 축약과 현상에 대한 점검이었다면 (Gottlieb 1992; Kovacic 1998; de Linde and Kay 1999) 이제 영상번역 연구에서 자막번역의 제약과 축소 현상은 당연한 전제로 인식되고 있다고 하겠다.

영상번역에서는 아이헬라(Aixelà 1996)가 정의내린 문화특정 항목(Culture-specific items) 등 문화관련 어휘에 대한 여러 논의가 아직까지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Pedersen 2011). 국내의 동향을 분석해보면 문화적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정인희(2006), 조성은(2008), 조재범(2009), 오미형(2010) 등 번역 전략에 대한 논문이 2007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최근까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 나타난다. 또한, 최근에 외국의 영상번역 학술지와 국제학술

대회에서 영상번역 연구자들에게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는 연구주제는 바로 팬번역(Fansub)인데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최고이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가 활성화된 국내의 여건상 팬번역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고(김순영 정희정 2010; 조성은 2013; 박경리 2013) 앞으로도 계속 이 주제의 연구논문이 많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학적 접근 방식은 자막을 통역교육에 활용하는 주제에 대한 김태형(2003)의 연구를 필두로 영어교육의 범주에서 영상자막과 교육을 접목시키는 시도가 많이 있었다. 끝으로, 오역분석에 대한 논문이 3편에 그치는데 영상번역의 분석이 목표 문화권에서 그 텍스트의 표현방식과 자리매김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지 등가의 원칙이나 좋은 번역, 나쁜 번역을 따지는 원본과의 비교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술론적 관점에서 단순 오역 사례 나열에 대한 연구는 바람직한 연구전개방식이 아니라고 하겠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의 영상번역에 대한 연구는 2007년도에 양적으로 팽창한 이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내용적으로는 번역학과 접목이 되는 학제간 이론을 바탕으로 언어학 접근, 문화적 접근 외에 연구 주제가 골고루 분포되어있는 것이 분석되었으나 좀 더 다양한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연구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 영상번역 분야에서는 새로운 연구방법론에 대한 개발과 분석대상 텍스트, 언어의 다양화 등이 앞으로의 당면과제라고 하겠다.

4. 향후 영상번역 연구를 위한 제안

최초의 영상번역 관련 논문이 발표된 2003년도 이후, 국내의 영상번역 연구는 십여 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폭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다수의 연구자들이 영상 텍스트에 대한 꼼꼼한 분석을 시도하여 연구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노력의 결실인 그간의 영상번역 연구논문들을 2003년 이후의 성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영상번역 연구는 질적, 양적인 성장과 함께 긍정적인 연구 경향들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본 장에서는 영상번역 연구의 영역이 더욱 확대되고, 다양한 연구 주

제가 수용되길 바라며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분석대상 텍스트를 양적으로 증대시키고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모색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연구방법론 측면에서 코퍼스연구가 확대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영상번역의 규범을 모색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영상번역 분야는 영상이라는 텍스트를 탐구하는 영역이므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연관 분야와 접목시키는 있는 충분한 양의 분석이 실행되어야 한다. 오늘날의 영상번역 연구는 학제간 연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대부분 연구의 틀은 기술론적 번역학, 폴리시스템 이론과 기능주의 번역학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Remael 2010). 국내의 연구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연구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국외의 연구와 비슷한 추세로 다양한 이론을 바탕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분석 대상이 되는 텍스트의 양이 그다지 다양하거나 충분하지 못하다. 지금까지 연구된 논문들을 점검해본 결과, 많은 논문들이 단일 텍스트 또는 영화 몇 편을 선정하여 원천 텍스트와 목표 텍스트의 비교 분석에 그치고 있고 대규모의 실증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연구방법에 있어서 코퍼스 구축을 통해 영상번역 분석텍스트의 분량 확대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내 영상번역 연구는 단일텍스트의 번역이나 영화, 드라마 몇 편을 분석하는데 그쳤지만 이제 더 확대된 대규모 코퍼스를 구축하여 또 그에 따른 국내 영상번역에 대한 규범을 찾아내는 노력도 기울일 수 있을 것이다.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의 Forli 영상번역 코퍼스(Forlinox 1) 같은 대규모 코퍼스를 축적하는 프로젝트(Valentini and Linardi 2009)나 TV 프로그램용 자막 번역 분석을 통해 규범을 실증적으로 점검하고 미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페데르센(Pedersen 2011)의 연구 등을 검토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코퍼스를 구축하는 작업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둘째, 영상번역 연구의 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영상번역 주요 방식인 자막번역이나 더빙에 대한 연구 외에도 연극이나 오페라 번역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어야 한다. 뮤지컬 번역에 대한 광성희(2008)의 연구 성과도 있었지만 무대 위의 스크린에 자막 번역이 올라오는 장치인 surtitling, 극장 좌석 뒤에 위치한 작은 스크린에 자막이 나오는 시스템인 opera titling에 대한 연구도 연구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해외 영상번역 연구 영역에는 청각, 시각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accessibility)을 용이하게 해주는 청각장애인을 위

한 자막영화(audio description for the visually-impaired)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영화 (subtitling for the d/Deaf and the hard of hearing)에 대한 분석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국내에서도 부산영화제에서도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특별 전용관 운영을 하고 있고⁸⁾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본'이 추가된 DVD 출시⁹⁾되는 등 시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분야에 대한 연구로 시야를 확장시켜야 한다. 또한 최근에는 비디오게임 시장이 DVD시장보다 몇 개나 확대되고 있는데 극장용 영화나 DVD 번역보다 훨씬 속도가 빠르고 축약되어 있는 (Mangiron and O'Hagan 2006: 14) 비디오게임 로컬라이제이션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비디오게임 로컬라이제이션에는 때로는 언어전문가의 영역을 벗어나는 “창의적인 번역이 요구되기도 하는 만큼”(Bernal-Merino 2011: 17) 영상번역 연구에서 새롭고 진취적인 연구 주제가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전문 영역으로서의 영상번역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한다. 영상번역은 영상물 상품(audiovisual product)을 생산해내는 전문적인 제작 방식에 있어서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런 전문 영역으로서의 영상번역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야 한다. 최근 유럽 등지에서 특히 전문 영상번역의 표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DVD의 보급과 수요에 따른 제작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주로 LA와 런던에 위치한 자막제작 업체들이 40개 이상 언어에 대한 자막 동시 제작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Kapsaskis 2011), master subtitles, genesis files 등으로 지칭되는 영상번역 표준 템플릿(template)에 대한 점검을 비롯하여 영상번역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서의 변화를 감지하여 이를 연구에 반영해야 한다.

넷째, 급변하는 시대환경과 번역환경을 반영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컴퓨터기술의 발전과 광대역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가 조

7) “making audiovisual content accessible to those who otherwise could not have access to it” (Diaz-Cintas 2005: 5)

8) 부산국제영화제 ‘실버장애인 전용관’ 운영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6350982&ctg=1200&tm=i_if

9) 시각장애인 위한 화면해설 영화 DVD 보급 안내

-<http://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02&NewsCode=000220121218143640331051#z>

직적으로 성장하고 진화함에 따라 팬번역(Fansub)은 이제 당당한 “사용자가 생성한 번역(user-generated translation)”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고(O'Hagan 2009: 5), 더 이상 음지의 아마추어 환경에서 진행되는 활동이 아닌 영상번역연구 뿐만 아니라 미디어연구와 문화연구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가 되었다(Perez-Gonzales 2012; Perez-Gonzales 2013). 특히K-drama나 K-pop등 한국의 문화컨텐츠가 인터넷을 통해 각국으로 보급되는 상황에서 정규 번역 외에도 팬들에 의한 한국어-외국어 팬번역(Fansub)이 아시아 전역을 비롯해 서유럽, 동유럽 각국에 퍼져나가는 현상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한국이 미디어 컨텐츠를 창출해내고 전 세계로 보급하는 강대국이 된 지금, 우리 말 미디어 컨텐츠를 다양한 외국어로 번역한 영상텍스트에 대한 통합적인 연구도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상번역은 이제 더 이상 번역학연구의 주변부 자리에 위치한 학문이 아니라 번역학이라는 학문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영역으로 급성장했다. 본 연구는 발전하는 연구 환경과 발맞추어 국내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영상번역 관련 연구논문들을 년도별, 연구주제별, 연구 대상 텍스트별, 언어별 및 번역방식별로 분석하고 향후 전망에 대한 제안을 제시하여 영상번역 연구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영상번역은 그 특수성, 다양성과 유동성으로 인해 번역학의 학문적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앞으로 학문적 체계가 더욱 확립되고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된다면 영상번역은 진정한 “영상번역학(Audiovisual Translation Studies)”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고, 번역학의 학술 기반을 더욱 굳건히 구축하는데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지혜 (2006) 「자막번역과 언어 사용의 경제성」, 『텍스트언어학』 21: 23-53.
 김순영 정희정 (2010) 「인터넷 기반 비전문가 자막번역(Fansubs)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고찰」, 『번역학연구』 11(4): 75-97.
 김지원 (2000) 「번역 연구의 발전과 번역학의 현황」, 『번역학연구』□(1): 9-31.

- 김지원 (2004) 「번역학의 어제와 오늘」, 『번역학연구』 3(1): 55-75.
- 김정우 (2005) 「한국 번역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번역학연구』 6(2): 29-57.
- 김정우 (2008) 「한국번역사의 시대 구분」, 『번역학연구』 9(1): 29-69.
- 김정우 (2012) 「한국의 번역학 연구와 국어학의 몇 과제」, 『우리말글』 56: 1-41.
- 김태형 (2003) 「한글 자막의 번역 형태에 따른 영어 청해와 통역교육」, 『통역과 번역』 5(2): 127-47.
- 김혜림 (2013) 「한국의 당대(1999-2013) 번역학 연구동향」, 『번역학연구』 14(5): 95-115.
- 박경리 (2013) 「미국 드라마 팬 자막 이용자의 선호도 조사」, 『번역학연구』 14(5): 117-41.
- 박미정 (2007) 「Textuality 관점에서 본 더빙번역과 자막번역 -겨울연가 한일번역의 Politeness를 중심으로」, 『통번역교육연구』 5(1): 129-44.
- 박윤철 (2007) 「영화자막에서 시각기호에 의한 축소번역」, 『번역학연구』 8(1): 125-49.
- 박윤철 (2008) 「시각 요소에 의한 정중성 보존 연구」, 『번역학연구』 9(1): 145-66.
- 신지선 (2013) 「번역교육 관련 연구동향 및 연구과제 고찰 -교육내용, 수업방법, 평가방식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5(2): 131-50.
- 유명우 (2000) 「한국의 번역과 번역학」, 『번역학연구』 1(1): 229-48.
- 이영훈 (2013) 「한국번역학사 기술을 위한 전제와 시론」, 『번역학연구』 14(2): 187-222.
- 이향 (2011) 「국내 번역학 연구 경향에 관한 일 고찰 -통번역학 연구 게재 논문의 분류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5(1): 341-62.
- 이향 (2013) 「번역학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연구방법론적 전환의 필요성-」, 『통역과 번역』 15(1): 145-62.
- 장민호 (2009) 「비디오폭력과 자막 -헐리웃 영화를 중심으로-」, 『통번역교육연구』 7(1): 205-21.
- 정인희 (2006) 「영한 영상번역 전략 연구」, 『번역학연구』 7(2): 207-33.
- 정호정 (2013) 「번역학 전문학술지의 발달과 최근 연구 동향 -1999년 이후 국내외 대표 학술지 분석-국외학술지 분석 성과」, 『통역과 번역』 15(1): 235-56.
- 조재범 (2009) 「영화 왕의 남자 자막번역에 나타난 문화소 번역 전략 고찰」, 『통

- 번역교육연구』 7(2): 215-35.
- 오미형 (2010) 「자막번역과 텍스트 외적 요소」, 『번역학연구』 11(3): 143-66.
- 최소영 (2007) 「영상번역을 통해 본 일-한 번역전략 -일한 자막번역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1(1): 131-44.
- 최희섭 (2007) 「번역학연구의 현황과 국내문헌 인용 고찰」, 『번역학연구』 8(1): 323-45.
- Aixelà, Javier Franco (1996). 'Culture-specific items in translation' in Román Álvarez and M. Carmen Africa Vidal (eds). *Translation, Power, Subversion*,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52-78.
- Aixelá, Javier Franco and Pilar Orero Clavero (2005) 'Research on audiovisual translation: Some objective conclusions or the birth of an academic field', in John Sanderson (ed.), *Research on Translation for Subtitling in Spain and Italy*, Alicante: Publicaciones de la Universidad de Alicante, 79-92.
- Bogucki, Lukasz (2013) *Areas and Methods of Audiovisual Translation Research*,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 Chiaro, Delia and Christine Heiss, Chiara Bucaria (2008) *Between Text and Image: Updating Research in Screen Translation*,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Cho, Sung Eun (2008) 'Intercultural Communication in Screen Translation: Culture-specific items in Dae Jang Geum', *Journal of Interpretation & Translation Education* 6(1): 195-212.
- _____ (2013) 'Translations of 30 Rock in the New Media Environment in Korea', *STEM Journal* 14(1): 1-15.
- Díaz Cintas, Jorge (2004a) 'Subtitling: The long journey to Academic Acknowledgement', in *Journal of Specialised Translation* Issue 01: 50-68. Retrieved April 29, 2014 from http://www.jostrans.org/issue01/art_diaz_cintas.php
- _____ (2004b) 'In search of a theoretical framework for the study of Audiovisual Translation', in Orero, Pilar (ed.), *Topics in Audiovisual Translation*,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21-34.

- _____ (2008) *The Didactic of Audiovisual Translation*,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_____ (2009) *New Trends in Audiovisual Translation*. Bristol: Multilingual Matters.
- Díaz Cintas, Jorge and P. Muñoz Sanchez (2006) 'Fansubs: Audiovisual Translation in an amateur environment', *Journal of Specialised Translation* 6: 37-52.
- Díaz Cintas, Jorge and Aline Remael (2007) *Audiovisual Translation: Subtitling*,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 Díaz Cintas, Jorge and Gunilla Anderman (2008) *Audiovisual Translation: Language Transfer on Screen*,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 Fodor, István (1969) 'Linguistic and Psychological Problems of Film Synchronisation', *Acta Linguistica Academiae Scientiarum Hungaricae* 19: 69-106.
- Gambier, Yves and Henrik Gottlieb (2001) *(Multi)Media Translation. Concepts, Practices and Research*,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Gambier, Yves (2008) 'Recent Developments and Challenges in Audiovisual Translation Research' in Chiaro, Delia, Christine Heiss and Chiara Bucaria (eds.), *Between Text and Image: Updating research in screen translation*,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11-33.
- Kapsaskis, Dionysios (2011) 'Professional identity and training of translators in the context of globalisation: The example of subtitling', *Journal of Specialised Translation* 16, 162-84.
- Kim, Ji-won (2013) 'Korean Tradition of Translation - From the Gabo Reform to the Present',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14(3): 41-63.
- Kirk, Sung Hee (2008) "Translated Musicals and Musical Translation in Korea",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9(1): 283-309.
- Lambert, José (1989) 'La traduction, Les Langues et La Communication de masse: Les ambiguïtés du discours international', *Target* 1(2): 215-37.
- Luyken Georg-Michael and Thomas Herbst (1991) *Overcoming Language*

- Barriers in Television: Dubbing and Subtitling for the European Audience*. Manchester: The European Institute for the Media.
- O'Hagan, Minako (2009) 'Evolution of User-generated Translation: Fansubs, Translation Hacking and Crowdsourcing', *Journal of Internationalisation and Localisation* 1: 94-121.
- Orero, Pilar (2004) *Topics in Audiovisual Translation*,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Pedersen, Jan (2011) *Subtitling Norms for Television*,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Remael, Aline (2010) 'Audiovisual translation', in Yves Gambier and Luc van Doorslaer (eds.),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Volume 1*.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12-17.
- Snell-Hornby, Mary (2006) *The Turns of Translation Studies*,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Valentini, Cristina and Sabrina Linardi (2009) 'Forlìx 1 : A multimedia database for AVT research', *inTRAlinea* Special Issue: The Translation of Dialects in Multimedia. Retrieved April 29, 2014 from <http://www.intralinea.org/specials/article/1715>.
- Zabalbeascoa, Patrick (2010) 'Translation in Constrained Communication and Entertainment', in Jorge Díaz Cintas, Anna Matamala and Josélia Neves (eds.), *New Insights into Audiovisual Translation and Media Accessibility. Media for All 2*. Amsterdam/New York: Rodopi, 25-40.

[Abstract]

Recent Trends in Audiovisual Translation Research in Korea

Cho, Sung-Eu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current trends and issues in the field of Audiovisual Translation in Korea and to offer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in the field. The article is divided into three sections. First, the history of Audiovisual Translation research is briefly examined. Second, research articles published in various Translation Studies related journals in Korea were systematically analyzed according to publishing year, research theme, research theme by year, text genre, source/target language combination and translation method. Finally, conclusions are drawn and brief observations are made about the current status of research. The study concludes with suggestions and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in the field of Audiovisual Translation Studies in Korea.

▶ Key Words: audiovisual translation, dubbing, multimedia translation, research trends, subtitling

조성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통번역학과 교수

secho@hufs.ac.kr

관심분야: 영상번역, 미디어번역, 번역과 문화

논문투고일: 2014년 4월 30일

심사완료일: 2014년 5월 30일

게재확정일: 2014년 6월 16일